



민선 9기 첫 행정시장 누가 맡나

3일부터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공모 절차 돌입
제주시장 5명·서귀포시장 4명 자천타천 거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8월 중 임명 예정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상반 기 행정시장 공모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장 5명, 서귀포시장에는 4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3일부터 9일까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한 공모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관련 일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명 시기는 오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양 행정시장 후보군으로는 전직 도의원, 고위 공무원, 언론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시 후보군은 도의장을 포함해 전직 도의원 3명,

전직 제주시 부시장 1명, 현직 단체장 1명 등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도의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성곤 도지사의 선거 당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전직 도의원 A씨가 초반 물망에 올랐으나,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귀포시 후보군은 현재 위성곤 제주도정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이자 전직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인물을 비롯해 공무원 2명, 전직 도의원 1명, 언론인 출신 1명이다. 언론인 출신은 공모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서귀포시장 공모 접수를 고사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최근 뜻을 바꾼 상태로 가장 유력하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위성곤 지사의 도지사 출마로 서귀포시 보궐선거가 이뤄지며 김성범 국회의원을 도왔던 전직 도의원도 적극적인 공모 접수 의사를 밝히며 배제할 수 없다. 전직 공무원 1명은 해양수산직 출신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공직자 내부에서는 민선 9기 첫 행정시장으로 행정 전반을 잘 아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유력할지 높지 않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행정시장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가 후보자 2~3명을 선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임용예정자를 지명해 도의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구하게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1일 제주북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현장 중심’ 첫걸음

임기 첫날인 1일 학교 잇단 방문으로 공식 업무 돌입
취임사는 영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만들 것”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1일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고의숙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이날 오전 제주북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반갑게 악수하기도 했다. 이후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교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고 교육감은 제주북초를 시작으로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향공우주고등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성산고등학교와 서귀포초등학교를 찾는다. 방문 학교에는 초중고와 공립, 원도심과 도심, 자율학교와 특수학교, 특성화고 등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고 교육감이 정식 취임식을 대신해 현장 방문으로 임기를 시작한 데에는 ‘현장 중심’ 기조가 반영됐다. 고 교육감은 제주북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청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은 새로운 제주교육의 4년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현장 중심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의 길을 걸어갈 때, 도민과 함께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할 정책 과제가 확

정됐지만 재원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 고 교육감은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금 바로 공약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권고를 받았다”며 “도민과 소통하면서, 교육청 내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인수위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의 취임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됐다. 고 교육감은 이 영상에서 제주형 IB교육 과정을 KB(한국형 IB)로 승화하고 제주4·3교육과 신철, 사람 중심 AI(인공지능) 교육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이날 3일까지 취임 행사 일정을 이어간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두 명이 같은 국회 상임위 이례적… 득일까 실일까
문대림·김성범 농해수위, 김한규 법사위 배정

제주 국회의원들의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김성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배정됐는데, 제주에서 두 명이 한 상임위에 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배정됐고, 문 의원은 농해수위와 예결위원회, 김 의원은 농해수위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하반기 상임위 배정은 제주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상

황에서 두 의원의 상임위가 겹치면서 앞으로 제주의 각종 현안의 중앙 절충에 한계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 관련 입법, 제주 제2공항과 앞으로 추진될 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안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상임위 활동도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동일한 두 의원이 앞으로 제주의 1차 산업 현안에 대해 동일 사안을 두고 같은 행보를 펼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두 의원의 같은 상임위 활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제주 출신 의원이 거의 활동하지 않았던 법사위에서 김한규 의원이 활동하게 된 점도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 주요 회의 실시간 공개
위 지사 지시… 유튜브 생중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회의가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제주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로 도민이 직접 들여다볼 통로는 없었다.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은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과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부회의의 생중계 첫 시도는 2일이다. 제주도 공식 유튜브(@jejudo_official) 채널을 통해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의 생중계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공개 대상 회의와 송출 방식을 검토해 본격적인 생중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도, ‘작은학교’ 정주여건 개선·정착 지원 본격
중·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 확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6월 30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

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의 주거·정주 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소규모 학교’는 ‘작은학교’로 변경·정비됐

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년 이하인 초·중학교를 일컫는 말로, 2025년 기준 제주지역 59개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신축 건립’에만 국한됐던 지원사업의 범위가 중·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026년 제주 3개 향교 연합 전국 유림 학술대회 안내

기간

2026년 7월 5일(일) ~ 7월 7일(화) (2박3일)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하나로마트 오라점 3층 대강당, 제주 3개 향교, 제주도내 일원

전통제례알리기 교육

2026년 7월 5일(일) 14시~18시 (하나로마트 오라점 3층 강당)

대상

제주 3개 향교 유림 및 전국 유림 가족 등 700명

주최/주관

제주 3개 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성균관, 전국향교전교협의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청년유도회, 성균관 한국유교신문, 유도회총본부 유교문화신문

학술대회 문의처

제주향교 TEL(064)757-0976, (064)725-0976

FAX(064)756-0976

사무국장: 010-2689-0405 // 0202lcy@naver.com

문의상담 제주향교 전 교진인수 010-6765-5215

제주향교 부전교 김권삼 010-3691-0001

제주향교 사무장 송민정 010-2880-0924

제주향교 · 정의향교 · 대정향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